

해외 출장 복명서

– 충남지역 중심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해외 사례지역 방문 –

지역발전연구센터

김윤수 · 김선배 연구위원

I. 출장 개요

□ 과제명: 충남 산업발전을 위한 지식융합지구 조성전략

□ 출장자: 김윤수 연구위원(연구책임자), 김선배 연구위원

□ 출장기간: 2017년 2월 13일(월)~2017년 2월 17일(금) 4박 5일

※ 2월 18일(토) 귀국(개인휴가 1일 실시)

□ 출장목적: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환경 및 전략 연구

- 중국 심천은 내외부 자원 간 네트워크가 활발한 가치망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상호 협력 및 공동 창조를 통해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음.
- 심천은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불리었을 당시 공장 간 클러스터가 조직되고 관련 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면서 제조업 중심지 역할을 한 지역으로, 최근 창업지원 기관과 액셀러레이터가 풍부한 민간창업투자 및 정부 창업지원을 토대로 이러한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고 있음.
- 심천지역이 홍콩과 인접하여 IT 제조분야 창업환경이 과거 저비용에 기반한 단순 제조 기지에서 혁신 제조업 창업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어, 충남의 산업여건이 지향해야 할 창업기반의 지식융합 지구환경 조성 전략수립에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한 해외 산업 도시로 평가되어 정부 창업지원 기관 및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조사, 전문가 면담 진행을 통해 충남 지식융합지구 조성 전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홍콩은 심천에 인접한 대도시로서 심천의 창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투자자금과 인력 공급의 원천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어 충남의 경우 서울경기에 인접하고 있어 홍콩과 심천이 공간적으로나 투자환경의 특성을 연구하여 충남형의 창업생태계 조성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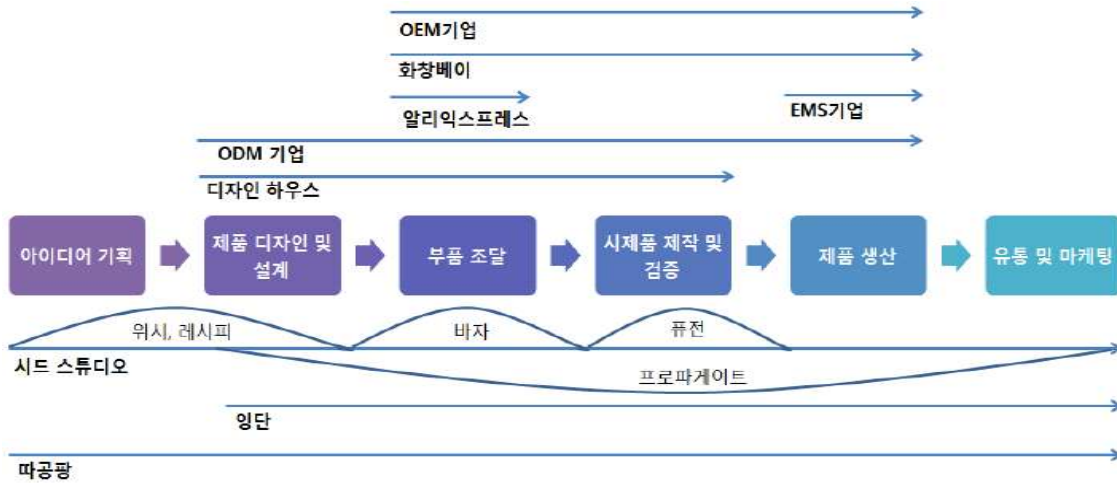
□ 출장지: 중국 심천, 홍콩

□ 출장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2월 13일(월)	10:15 OZ 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Asiana) →심천 출국 	5시간(비행) 심천 숙박
	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천 도착/출장 계획 점검 및 통역 확인 - 오프라인 부품 플랫폼 조사(화창베이 전자상가 방문) ● 심천 무역관(KOTRA) 	
2월 14일(화)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기관 방문 - STARGEEK, 따공방 	통역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 및 관련 기관 방문 - 제조업 특화된 심천의 창업생태계 탐방 - 팀지전자 회사 방문 - KOTRA/인단 간담회 개최 	통역 심천 숙박
2월 15일(수)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트 방문 - 헥스(HAX) 	통역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천 현지 파견 삼성 직원 인터뷰(간담회 개최) ● 심천→홍콩 이동(기차이동) 	홍콩 숙박
2월 16일(목)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중심 지역의 외국인 투자 환경 조사 - 주장 삼각주 물류 시스템 실태조사 	통역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심천 통합도시 경제권 추진 전략 조사 - 홍콩 KOTRA 무역관 방문 	홍콩 숙박
2월 17일(금)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한인상공회의소 방문 - 심천 대상 외국인 투자 제도 조사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성과 분석 및 자료정리 - 심천/홍콩 추가 연구자료 확인 	
2월 18일(토) (개인휴가)	오전	개인휴가	
	13:15 OZ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인천(17:30) 귀국 	4시간(비행)

II. 출장 주요 내용

□ 심천의 하드웨어 창업단계별 활용 자원실태 조사 개요



□ 제조 집적 클러스터 현장조사

- (부품확보) 오프라인 전자상가 화창베이(華強北) 방문조사: 기존의 발달된 제조 인프라를 통해 부품을 조달·판매
- (제품설계 및 제품생산) 디자인하우스 및 ODM기업들이 설계, 제품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에 아웃소싱 가능: 팀지전자 방문

□ 다양한 창업지원기관 방문(통역지원)

① 스타지크(STARGEEK)

- 바자(온라인 부품 거래 플랫폼), 위시(제품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 레시피(제품 제작 방법 공유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초보자도 단기간 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가능
- 퓨전 플랫폼 : 레이저 커팅을 비롯해 3D프린팅, PCB 조합 등 시제품 제작을 대행
- 프로파게이트 플랫폼 : 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 양산, 판매, 유통까지 원스톱 지원

② 따공팡(大公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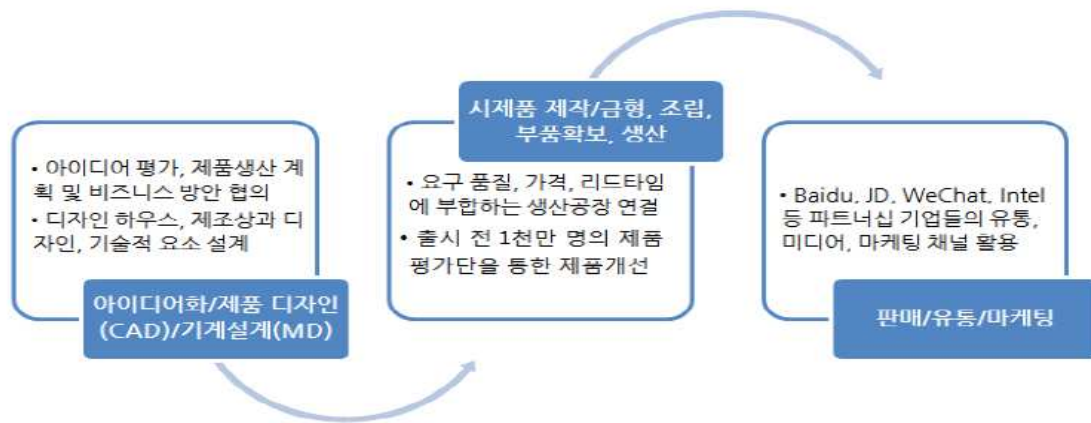
- 중소·벤처 기업전용 장외거래시장인 신삼판(新三板)에 상장된 기업

- 아이디어 설계부터 시작하여 하드웨어 스타트업 전 과정을 지원

③ 잉단(Ingdan)

- 설계도만 제시하면 제품 생산 단계별로 필요한 기업을 원스톱으로 연결
-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가격 협상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스타트업의 창업비용 절감에 도움

<잉단의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모델>



□ 전문화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방문: 헥스 방문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지분 취득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화된 창업지원을 제공, HW스타트업 성장(Scale-up)의 촉매제

<심천 소재 주요 액셀러레이터>

구분	액셀러레이터명 (운영기관)	설립년도	초기투자 (교환지분)	선발팀수	프로그램 기간	강점
외국계	HAX (SOSVentures)	2011	\$25,000(6%) \$100,000(9%) 최대 \$200,000까지 매칭펀드	상/하반기 각 15팀	111일 간 시제품 제작(심천) 후 데모데이(실리콘밸리)	심천/ 실리콘밸리 네트워크
	Highway1 (PCH International)	2013	\$50,000(5%) 최대 \$100,000(8%)	상/하반기 각 12팀	11일(심천) 포함 4개월(실리콘밸리)	공급망 네트워크
심천계	STARGEEK	2014	RMB 500,000 (필요시 5~6%)	상/하반기 각 10팀	6개월(심천)	투자 네트워크
	JD Plus	2015	-	현재 21팀 육성중, 총 100팀 목표	6~9개월(심천)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

□ 풍부한 창업투자자금 환경 조사

- 스타트업은 창업지원기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해
- 벤처·엔젤투자,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거래 시장, 대기업 투자유치를 지원받게 되며
- 풍부한 자금원은 심천의 활발한 창업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음
- 홍콩과의 연계 환경 조사(간담회 개최)

□ 정부의 창업지원 제도 조사

- 심천시는 창업 진입장벽 완화, 기술개발, 홍콩 자원 연계
- 우수 인재 유치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음
- 홍콩과의 연계 환경 조사(간담회 개최)

□ 정책적 시사점

- 중국 심천은 가치망(Value Web)을 기반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생태계가 조성된 지역
- 상호 협력(Collaboration) 및 공동 창조(Co-Creation)를 통해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
- 심천의 스타트업은 가치망 생태계를 통해 창업과정을 분업화하여 리스크를 관리, 혁신을 추구
-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성과가 시장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가치망 구축이 필요
- 대도시 지역(홍콩)과 제조업 지역인 심천과의 연계 협력 환경 구축

Ⅲ. 심천 창업생태계 조성의 성공요인 현지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1 차 : 2017년 2월 14일(화) 17:30 ~ 21:00(중국 심천 현지 시간)
- 2 차 : 2017년 2월 15일(수) 11:00 ~ 14:00(중국 심천 현지 시간)

□ 장 소

- 1 차 : KOTRA 선전 무역관 회의실
- 2 차 : KOTRA 선전 무역관 회의실

□ 참석자

- 1 차 : 김윤수, 김선배 연구위원, Sabrina Li(잉단 프로젝트 매니저), 통역 양후이 (총 4명)
- 2 차 : 김윤수, 김선배 연구위원, 정준규 관장, 김영권 과장, 박준규 삼성 파견 직원, 통역 양후이 (총 6명)

□ 일 정

- 1 차

시 간	내 용	비 고
17:30 ~ 17:40 (10분)	- 참석자 소개	김윤수 연구PM
17:40 ~ 18:00 (20분)	- 발표 1	김윤수 연구PM
18:00 ~ 18:15 (15분)	- 발표 2	김선배 연구위원
18:15 ~ 19:00 (45분)	- 발표 3	사브리나 리(잉단직원)
19:00 ~ 21:00 (120분)	- 종합토론	김윤수 연구PM 진행

※ 현지 간담회를 1회 계획하였으나, 잉단 프로젝트 매니저가 15일 참석이 어렵다하여 추가로 1차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2 차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분)	- 참석자 소개	김윤수 연구PM
11:10 ~ 11:25 (15분)	- 발표 1	김선배 연구위원
11:30 ~ 11:45 (15분)	- 발표 2	정준규 코트라 관장
11:45 ~ 12:00 (15분)	- 발표 3	박준규 삼성직원
12:00 ~ 14:00 (120분)	- 종합토론	김윤수 연구PM 진행

□ 발표내용

- 1 차

구 분	발표자	제 목
발표 1	김윤수 연구PM (산업연구원)	충남 지식융합지구 조성 방안
발표 2	김선배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한국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특성
발표 3	사브리나 리 (잉단 프로젝트 매니저)	잉단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

- 2 차

구 분	발표자	제 목
발표 1	김선배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충남 지식융합지구 조성 방안
발표 2	정준규 관장 (KOTRA 선전 관장)	심천시의 창업지원 정책 현황
발표 3	박준규 과장 (삼성 현지 직원)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 참석자

- 1 차 : 총 4명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분야	비 고
김 윤 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PM	발표 1
김 선 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 행	발표 2
사브리나 리	잉단	프로젝트 매니저	스타트업 정책	발표 3
양 후 이	통역	-	통역	-

- 2 차 : 총 6명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분야	비 고
김 윤 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PM	진행
김 선 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행	발표 1
정 준 규	KOTRA	관 장	창업지원	발표 2
박 준 규	삼성전자	과 장	스타트업 기업	발표 3
김 영 석	KOTRA	과 장	토론	
양 후 이	통역	-	참여	

□ 1차 회의록

1. 잉단 스마트 하드웨어 창업 플랫폼 현황(사브리나 리 PR 매니저)

- 잉단은 중국 최대의 스마트 하드웨어 혁신창업 플랫폼으로, 스마트 하드웨어 서플라이 체인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创意)를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잉단은 2014년 설립 이래 13,000개 이상의 스마트 하드웨어 프로젝트 및 14,215개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1,250만여 팬들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잉단은 서플라이 체인 데이터를 기초로,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여, 혁신기업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플라이 체인 금융, 마케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한 폐쇄형(closed circl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잉단은 세계의 스마트 제조업과 심천의 제조업을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기업구매(조달)’ O2O서비스 플랫폼인 코고바이를 토대로, 잉단은 이미 중국 최대의 스마트 하드웨어 플랫폼이 되었으며, IoT 분야의 기업혁신에 있어 작은 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심천 잉단 성공모델 기업은?(사브리나 리 PR 매니저)

- 코고바이의 본사는 현재 심천에 있다. 코고바이의 O2O기업 플랫폼은 이미 북경, 상해, 중경(충칭)에 까지 확대되었으며, 중국 여러 도시의 스마트 하드웨어 혁신 분야 제1의 플랫폼이 되었다. 동시에, 잉단의 서비스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홍콩 등 다른 국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와 중국 제조업 연결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 서비스 분야 공유경제의 모델이 되고자 한다.

- 잉단은 모회사인 코고바이의 서플라이 체인 자원을 잉단 고객에게 제공하여, 빅데이터 공유를 실현한다. 중국의 중국 인터넷플러스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잉단은 중국 전자제조업체의 첨단스마트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

3. 심천 잉단의 창업 생태계 특성은?(사브리나 리 PR 매니저)

- 잉단은 ‘창조적’ 스마트 하드웨어 업체의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한다. 잉단은 현재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홈, 건강의료, 로봇 그리고 신재료 생태계를 구축했다.

- 잉단은 스타트업을 위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 하드웨어 : 잉단은 13,000개 이상의 스마트 하드웨어 프로젝트 및 14,215개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업체를 보유
- 소프트웨어 : 다른 인터넷 회사와 협력, 다른 콘텐츠 영역에서의 협력, 그리고 자체 보유 특허까지 포함
- 클라우드 서비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생된 플랫폼이다. 혁신기업에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제공, 공급업체에는 수요 관련 자료를 제공, 사용자에게 스마트 하드웨어 제품을 제공, 스마트업(창업기업)에는 자본과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 서플라이 체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잉단 플랫폼 제품

- 잉단 몰 : 대중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주로 스마트 하드웨어 제품을 비롯해 로봇, 스마트 홈, 헬스케어, 아웃도어 게임, 육아 관련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 잉단 체험관 : 미래의 더 좋은 스마트 생활 체험을 위한 대중 체험관이다. 현재 북경, 심천, 순덕, 홍콩, 중경에 매장이 있다. 향후 상해, 무한에도 오픈 예정이다.

- 잉단 브랜드 마케팅

- 잉단은 1,250만여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브랜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중국 전역에 있는 잉단 체험관에서, 신제품의 출시 및 제품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잉단은 바이두, 웨이신, 징둥, 쑤닝, 360 등 O2O 플랫폼과 연합하여 스타트업에 VIP 채널을 제공한다.

4. 심천 잉단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전략은?(사브리나 리 PR 매니저)

- 2015년 1월, 코고바이가 잉단과 손잡고 실리콘 벨리에서 ‘The Maker’s Dilemma’ 라는 Maker(메이커) 컨퍼런스를 2015년 CES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교류에 대한 새로운 시도이자 제조업의 딜레마에 대한 것으로, 코고바이가 산하의 잉단과 손잡고 내딛은 국제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후, 잉단은 미국에 사무소를 열어, 북미의 개인 창업자와 중국의 자원을 연결시키고 있다.

- 잉단 미국 사무소는 이미 설립되어, 미국의 혁신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말, 코고바이는 미국에 잉단 스마트 하드웨어 체험관을 공식 오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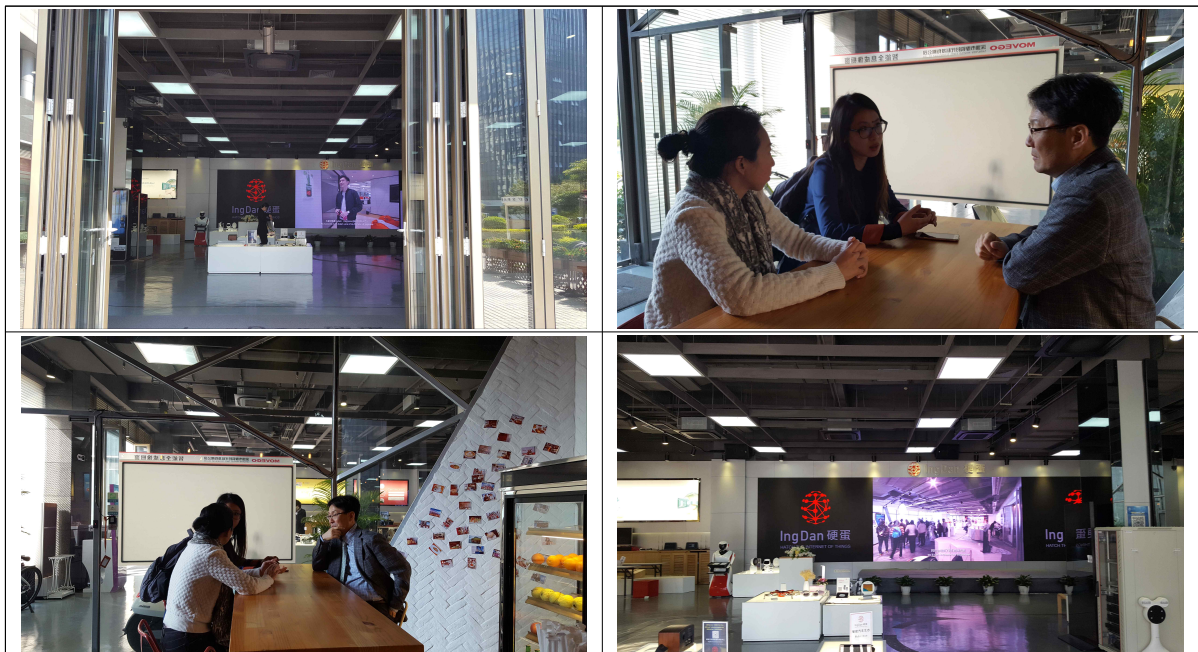
- 2015년 10월, 코고바이 및 잉단은 중국의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18건의 스마트 하드웨어 제품을 제3회 Maker Faire Rome(로마 개인 창업자 카니발)에 출품하였다. 이

는 잉단 해외 지사가 첫 번째로 해외에서 제품을 드러내는 현장이었다. 또한 코고바이가 앞으로 잉단 이탈리아 사무소를 통해 유럽 내 2000개의 개인창업자 및 혁신기업 등록 플랫폼과 연결되게 되며, 중국 제조업과 유럽의 두뇌가 연결되는 것이다.

- 2016년 4월, 코고바이는 일본에 일본 내 지사인 ‘잉단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파나소닉 서보 모터의 중국법인 영업부장, 서보 모터 공장장, 일본산쿄 모터사업부 부장을 역임한 타케우치 사토시를 영입하여 사장을 맡겼다. 마쓰시타전기 중국법인 부사장, 마쓰시타전기 기계제어 영업본부장, 홍콩 마쓰시타전기 사장을 상무이사로 영입하였다. 타케우치 사토시와 공업용 로봇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을 갖고 있다.

- 2016년 7월 6일, 로봇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잉단의 로봇 거래 플랫폼이 정식 오픈하였다. 동년 7월 14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로봇 혁신 생태계 관련 정상회의에서, 잉단과 인텔은 상세한 협력계획을 발표하였다. 향후 개방형 로봇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 혁신과, 시장 가속화, 전문적 운영이라는 3가지 방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는 산업용 로봇, 상용 로봇, 가정용 로봇, 교육용 로봇 등을 망라한다.

- 코고바이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새로운 잉단 스마트 하드웨어 체험관을 설립하고 있다.



□ 2차 회의록

1. 심천도시의 특성은?(정준규 관장)

- 중국 내 최초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1980년)
- 일반 개황
 - 면적 : 약 2000km (서울 면적 3.3배)
 - 인구 : 1500만명('15년 기준)
 - 산업 : GDP 중 2차산업 41.2%, 3차산업 58.8%
 - 기업수 : 약 214.1만개(이중 중소기업 약 118.5만개)
- 중국판 한강의 기적,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국 창조혁신도시, 중국 창업 1번지
- 중국 도시경쟁력 1위, 중국 창조혁신 지수 1위, 세계 3대 항만
- R&D 투자 중국 1위, 중국 수출 1위 도시, 중국 인구 밀도 1위

2. 심천시의 창업현황은?(김영석 과장)

- 전통 제조업에서 혁신 하드웨어 기지로 변화
 - 선전의 전세계 IT산업 메카로 부상
 - 화웨이, ZTE, 텐센트 본부소재
- 떠오르는 하드웨어 창업 중심지
 - 중국 최대 창업도시
 - 정부의 적극적 창업주도
 - 최고의 하드웨어 생태계 구축
- 세계가 주목하는 선전창업도시
 -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
 - 스타트업 위켄드 개최('14년 말)
- IT 대기업의 하드웨어분야 진출 : 텐센트, 화웨이, ZTE 등

3. 심천시의 창업 지원정책은?(정준규 관장)

- 제도 간소화
 - '14년 6월 중국 최초 사업자등록제도 개혁시행
 - 최저 자본금 제도 철폐
- 창업자금 지원
 - 정부의 적극적 투자 : 4년간 25억 투자, 창업 양성정책 실시
 - 2015년 창업촉진 정책 제정(창업자금 지원, 창업 임대료 지원)
- 혁신과학기술 장려 :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산업 지원
- 웨어러블, 3D프린터, 스마트카 등 신분야 선도
 - 선전시 2020년까지 웨어러블, 스마트 설비에 매년 5억 위안 예산투입

- 창업 인프라 구축 활발
 - 오프라인 매장수 15만개, 판매 종사자 15만명, 1일 유동인구 50만명
 - 매년 IT교역액 천억위안 초과, 온라인 거래 금액 200억 위안
- 제조 : 소량생산에 특화된 생산공장의 밀집
- 엑셀러레이터 : 선전 하드웨어 창업 발전 가속화
- 투자 : 혁신 스타트업 성장 베이스 마련
- 플랫폼 : 메이크 위드 선전
 - 프로타입 스타트업 200개사 참가, VC&제조상과의 협력모색
 - 드론, 로봇, 3D 프린터가 주류

4. 심천 창업 성공사례는?(김영석 과장)

- BBB
 - 휴대폰과 연결한 진단 모바일 헬스케어 개발
 - 평생 건강관리 시대에 걸맞은 최적의 글로벌 스타트업
- MakeBlock
 - 로봇 및 관련 부품 등 제조판매
 - 창업 4년만에 매출 4200만 위안달성, 그중 70% 해외판매
- Prynt
 - 스마트폰 사진인쇄 및 증강현실 기능의 혁신기술 스타트업
 - 크라우드펀딩으로 150만달러 모금달성
- Petcube
 - 앱활용, 애완동물 모니터링 및 음성전달 가능
 - HD화질, 138도의 앵글 카메라, 원격상호 작용가능
- DJI
 -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 점유율 1위 드론 생산기업
 - 군사용에서 키덜트 전용까지 다양한 용도에 맞는 드론제작
- Royole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용 디스플레이 생산기업
- iCarbonX
 -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

5. 심천 창업의 특이사항은?(박준규 삼성과장)

- 정확한 타겟시장 선정
- 투자유치 고려
- 제품의 혁신성
- 선전 소재 유명 EMS와 협력생산
 - 애플 위탁생산업체 폭스콘

- 산자이 폰의 아버지 MediaTek
- 해외 아웃소싱과 중국 제조업의 결합
 - 애플 위탁생산업체 폭스콘
 - 산자이 폰의 아버지 MediaTek
- 해외 아웃소싱과 중국 제조업의 결합
 - 제조사들의 디자인과 스펙 이용, 최소수량 주문생산 가능
 -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제품생산 가능
- 중국 심천은 스마트 하드웨어 창업을 중심으로 날로 커가는 경제 규모를 실현하고 있음.
- 중국 심천은 도시 자체가 중국 최대의 창업 플랫폼의 역할을 하여, 중국인들은 물론 해외 각처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예컨대 Galaxy Incubator에는 수개의 한국의 창업팀이 입주해서 지원받고 있으며, 대공방은 한국의 창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창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으며, 대공방의 운영자는 한국의 높은 기술과 중국의 창업 환경의 결합을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심천은 메이커들을 위한 ‘Maker faire Shenzhen’ 을 2012년부터 개최하여 전세계의 메이커들이 참가하고 있음.
- IngDan, Galaxy Incubator, 대공방 등의 메이커 스페이스나 액셀러레이터의 대폭적인 성장세는 중국 심천에서 메이커 운동의 지원과 창업 지원의 비즈니스가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심천에서의 창업 열기를 반증하는 것이라 틀림이 없음

6. 심천 시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시사점은?(정준규 관장)

- 중국 심천의 메이커 창업의 활성화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책에 힘입은바가 큼.
- 중국 심천 정부는 창업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은 물론 투자와 행정지원으로 메이커 창업의 각 단계를 지원하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創業創新” 으로 창업과 혁신을 강조하여, 메이커 창업의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그는 초창기의 대표적 메이커 스페이스인 Chaihuo Maker Space를 방문하여 메이커 창업 활동을 선전하였고, 물품 반입과 비자 발급 등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최적의 메이커 페어의 장소를 제공하고 장소의 정비를 지원하여, 선전시의 메이커페어가 세계적인 메이커 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하였음
- 심천시는 메이커 페어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선전시의 박람회장은 한국 코엑스 전시장의 10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 예컨대 IoT 국제박람회에서는 건강관련 혹은 주택관련 스마트하드웨어 제품과 VR(가상현실) 제품을 선보이고 있음.

< 심천창업지구 전경 조감도 >



< 심천창업지구 전경 평면도 >



IV. 홍콩 창업생태계 구축 전략 현지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17:00 ~ 19:30(중국 심천 현지 시간)

□ 장 소 : KOTRA 홍콩 무역관 회의실

□ 참석자 : 김윤수(연구PM), 김선배 연구위원, 홍창표 홍콩KOTRA 관장,
이경남 홍콩 KOTRA 과장, 선은균 홍콩한국상공회 직원 (총 5명)

□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17:00 ~ 17:10 (10분)	- 참석자 소개	김윤수 연구PM
17:10 ~ 17:50 (40분)	- 간담회	김윤수 연구PM
18:00 ~ 19:30 (90분)	- 종합토론	홍콩 코트라 관장

□ 발표내용

구 분	진행자	제 목
간담회	김윤수 연구PM (산업연구원)	홍콩-심천 지역연계 특성과 발전 과정
종합토론	홍창표 관장 (KOTRA 홍콩)	심천 창업생태계의 성공전략의 시사점

□ 참석자 : 총 5명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분야	비 고
김 윤 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PM	진행
김 선 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행	토론
홍 창 표	홍콩 무역관	관 장	창업금융	
선 은 균	홍콩한인상공회	과 장	기업경쟁력	토론
이 경 남	홍콩 무역관	과 장	참여	

□ 회의록

1. 홍콩과 심천과의 경제교류의 중심지는 어디인가? (홍창표 관장)

- 심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가 홍콩지역과 연결되는 심천 투자지역으로 보임

- 심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는 기반 서비스, 공공 서비스, 확장 서비스의 3중 체계로 조성된다. 정책 자문, 행정 심사, 투자 용자, 비즈니스 협상, 인재 양성, 업종간 교류, 특히 출원 및 멀티 플랫폼을 설정하였다. 동시에 4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심천시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있으며, 심천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주적 혁신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체 규모를 끌어올려, 심천 글로벌 영향력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2. 홍콩과 심천과의 경제교류 특성은? (이경남 과장)

- 2015년 7월, 잉단 홍콩 사무소가 설립되다. 동년 11월 21일, 홍콩에서는 홍콩미래대회가 개최되었다. 본토(중국)의 혁신적인 상품이 잉단 홍콩 플랫폼을 통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잉단홍콩사무소 역시 홍콩 혁신 상품이 본토(중국)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었다.
- 2016년 3월, 잉단은 홍콩사이버포트에 600㎡ 규모의 잉단 스마트 하드웨어 체험관을 설립하여, 무료로 개방하였다. 코고바이는 이를 통해 잉단이 홍콩내 창업자(者)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연결해 주는 ‘슈퍼 커넥터’가 되게 하겠다는 의도이다.
- 코고바이 부사장에 따르면, 홍콩 내 배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홍콩내 창업자들은 실용성을 매우 강조한다. 그래서 잉단은 벤처 캐피탈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홍콩에서 초기 단계의 육성(보육)을 조기에 마치고, 시장 판매 경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내륙(중국) 제품을 어떻게 해외에 판매하는지, 또는 해외 제품을 어떻게 내륙(중국)에 파는지 등도 배울 수 있다.
- 또한, 코고바이의 잉단은 5,000만 USD(약 4 억 홍콩 달러)를 홍콩 혁신 기금 설립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이는 홍콩에 등록된 모든 혁신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한다.

3. 홍콩의 기업관리서비스 플랫폼의 특성은? (홍창표 관장)

- 기업서비스 플랫폼은 지적 재산권, 컨설팅, 인재 육성의 3대 핵심 기능을 하나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로 조성하는 것은 홍콩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국가지적재산권심천대표부와 인재교류센터에 맡겨져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적 재산권 보호, 성과의 전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경영 컨설팅, 정보 보안, MICE 산업, 교육 훈련, 인력 교류 등 다양한 서비스와 기업 혁신의 효율성 최적화, 기업과 정부, 기업과 산업단지, 기업과 기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가교 역할 등이다.
- 과학 기술 금융 서비스 플랫폼은 과학 기술 금융의 혁신적 실천이자, 산업단지가 금융 자본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건전한 생태계를 갖추는 중요한 조치이다.
- 인문 사회 교류 커뮤니티 플랫폼은 직원들에게 학습 훈련, 우편·택배 서비스, 생활 밀착형 서비스, 대외 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심천시, 홍콩의 창업생태계에서의 인력양성 정책의 특성은? (홍창표 관장)

- 심천은 스마트 하드웨어 창업은 중국의 고학력 인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북경대, 칭화대 등 중국 각지에서의 우수한 인재들(다수가 석박사)이 심천에 몰려들고 있으며, 이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의 길보다는 창업을 선택하여 심천으로 오고 있는 것임.
- 이에 심천은 청년들이 인구의 90%가 될 정도로 젊은 도시가 되었으며, 청년들은 창업과 그 성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음
- 이러한 청년들의 목표 의식은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이 되어서는 “집한칸 사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으나, 중국의 20대 그룹이 거의 모두 창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창업 기업의 성공이 주요한 롤 모델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함.
- 특히 메이커 운동과 관련하여 Chaihuo 메이커 스페이스 등에서는 메이커 창업 교육으로 창업의 대중화에 앞장 서고 있으며, 학교용 키트를 자체 생산하여 메이커 교육의 교재로 활용하게 하고, 이들 교육이 방과후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5. 심천/홍콩의 창업생태계 성공요인을 통해 주는 한국의 시사점은? (선은균 과장)

- 중국 심천의 메이커 생태계는 주변 광둥 지역의 제조 인프라와 홍콩 주위의 좋은 지역 환경 등의 우호적 여건도 중요하였지만
- 정부의 메이커 창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정부의 메이커 창업 지원은 산업구조 변환에 대처하는 정부의 지도력은 물론 대졸자 청년의 급증과 그에 따른 취업 문제 해결이라는 시급성도 있었지만,
-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창업 환경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그에 맞는 창업 지원 정책(메이커 창업 지원)을 편 것이 주효하였음
- 한국의 경우 메이커 운동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이며, 메이커 창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
- 정부 당국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메이커 운동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위에서부터의 메이커 운동 지원(그것도 내실이 별로 없는 보여주기 식의)만 수행하고 있을 뿐.
- 현재 한국 정부의 메이커 운동에 대한 지원은 미래창조부, 중기청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과 같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정부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창업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메이커 창업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 지원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이를 실현해야함.
-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이 잘 통하지 않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한국은 중국에 뒤쳐짐은 물론 자칫하면 2류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큼.

6. 심천/홍콩의 창업환경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홍창표 관장)

- 중국 심천에서의 창업(제품 양산) 비용은 일본과 한국 보다 훨씬 저렴함. 이는 잘 갖추어진 부품 공급망은 물론, 클라우드 펀딩 등 엑셀러레이터의 실효성 있는 지원의 덕분.
- 한국에서는 창업 비용이 OECD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되며, 창업 비용이 줄어드는 OECD 각국과는 달리 일정한 창업 비용의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 청년들이 창업에 거는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으며,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인색하여, 유능한 청년은 창업을 기피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 메이커 운동을 통한 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제품화하며, 커뮤니티를 통한 광고 및 클라우드 펀딩으로 양산 단계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한국에서도 이러한 메이커 창업을 지원하고 확산하여, 낮은 비용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창업 마인드 셋을 형성하는 일
-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며, 이에 유능한 청년들이 창업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한 창업자들이 세계적인 부호로 성장하면서 모범 사례를 구축하여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20대 기업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업으로 창업을 하여 성공한 기업의 비중이 매우 작음.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서열 구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금수저, 흙수저 등의 자괴적인 신분분류가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창업을 통한 성공이 한국 사회에 필요함
- 그러나 창업을 위한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창업의 현실이 바뀌어야 하고, 부모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함. 이러한 부분이 향후 보고서의 작성에서 해결책을 내놓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임.
- 창업 마인드셋의 확립을 위해서도 메이커 운동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창업의 생태계가 메이커 운동으로 가능하며, 이는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지능기술의 진전, 사물인터넷의 진전, 3D 프린팅 등의 진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이기에 메이커 창업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창업 마인드 셋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